

합격기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성실하게
생활하셨다면
합격하실 겁니다.”



윤 미 섭

- 뽕뽕여자 중 · 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
- 2014년 56회 사법시험 합격

I. 서 설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합격수기를 쓰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오랜 수험기간을 걸친 끝에 합격한 것이고, 여러방법을 시도해보다 붙은 것이기 때문에 제 수기가 맞다, 틀리다라기 보다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생활을 한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잊혀진 부분도 많지만, 기억을 더듬으며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시에 붙었고 한번 해걸이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방법론인거 같습니다.

II. 제1차시험 공부

처음에는 고시반에 있었으나, 22살부터 신림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토익부터 시작해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는 시기가 주위의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었습니다. 정말 뭐하나 아는 것 없이 시작한 상태여서 고시반에서도 모의고사를 볼 때 꼴찌수준이었습니다.

1. 처음 1차시험에 붙을 때

2008년도 1차부터 응시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토익을 겨우 넘고 9월부터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점수가 형편 없었습니다. 당시에 민법은 너무 생소하고 방대했기 때문에 흥미도 없고, 점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법을 공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듣던 절도죄, 사기죄 등이 나오면서 법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김유향 선생님의 좋은 말씀 때문에 공부하는데 힘이 되었고, 헌법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세 과목 모두 진모를 탔습니다. 민법은 진모를 풀고 강의를 들었고, 형법의 경우는 기본강의를 밤새듣고 시험만 보았으며, 헌법의 경우는 진모강의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에 두 번째로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2점 차이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공부 방식은 회독수를 늘리려는데 집중했습니다. 기본강의는 다시 듣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혼자 책을 읽었고, 진모기간에는 세과목 모두 진모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응시한 1차에는 합격했습니다. 공부 방법은 비슷했고, 이때에는 민법만 진모를 했습니다.

민법은 방대한 만큼 1회독때 저는 핵심정리를 몇 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권순한선생님이 대세였기 때문에 권순한선생님의 진모를 하고 민법요해를 보았으나, 마지막 정리

는 다시 핵심정리로 했습니다. 이 때 당연히 민법기출문제도 보았습니다.

형법은 2008년에 송헌철선생님의 책을 주교재로 삼았었고, 신호진 선생님의 진모를 따라 갔었습니다. 2012년까지 기본서는 바꾸지 않고 판례집으로 보충만 했는데 이용배선생님의 판례집으로 했습니다.(개인적으로 이용배선생님의 판례집을 추천합니다)

헌법은 정희철선생님의 책을 기본서로하고 기출문제집으로 보충했습니다.

국제거래법을 선택했는데, 밥먹는 친구와 함께 12월 정도부터 하루에 5~10개 조문씩 외워오기로 한 후 서로 말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1차시험에 붙었을 때

(1) 이 때는 재시를 본 이후라서 민법은 2차기본서를 주교재로 삼았고, 김동진선생님의 진모를 따라갔습니다. 또한 상반기 3개년 판례집과 12월쯤에 나오는 ox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민법이 90점을 넘었던 사람들이 2명 있었는데 그 분들이 ox문제집을 10번 돌렸다는 말에 저도 그냥 믿고 10번 돌렸더니 민법이 90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김동진선생님의 ox를 추천하고 10번 정도 돌릴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 O×에서 풀었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어서
신기해했었던 기억납니다.

이 때 10번을 돌린다는 의미는 아
는 것은 지우고, 모르는 것 위주로 돌
렸습니다. 맞는 문제는 계속 맞게
되어있고, 틀리는 문제만 틀린다는 것
을 깨닫고 맞힌 문제는 과감하게 지
우고 틀린문제 위주로만 돌렸습니다.

(2) 형법의 경우 기본서가 너무 오
래되어서 신호진 선생님의 형법요론
으로 바꿨습니다. 판례집은 이용배
선생님 것으로 추가하여 보았습니
다. 형법의 경우는 누구나 자신있어
하는 과목이므로 자신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추세로 볼 때 합격선이 95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재시후 1차에서 떨어져서
해결이를 했는데 이때 문제점은 2차
가 끝난 후여서 시간이 없다는 생각
으로 다른 과목에만 치중하고 형법
을 소홀히 했더니 80점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3) 헌법은 위에서 했던 대로 그대
로 했습니다. 제 주변사람 말에 따
르면 선동주선생님의 부속법령을 마
지막에 돌린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고 합니다.

재시 발표 후라서 진모를 따라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민법
만 진모문제를 구해서 하루에 2회분
씩 풀었습니다.

Ⅲ. 제2차시험 공부

1. 재시 때까지의 공부방법

재시 때까지는 정말 무작정 공부
했던 거 같습니다. 3순환까지 학원
수업을 들었고, 빠진적은 없었습니
다. 다만, 시험은 몇 번 보지 않았습
니다.(이것이 가장 후회되었던 부분
입니다)

1순환시작 당시 민소가 너무 생
소했고, 스티디도 적응을 잘 못했으
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심리적으로도 많이 예민해졌
던 거 같습니다. 2순환부터는 학원
과정을 따라가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강평을 들었습니다. 이때 박승수 선
생님의 민소로 바꿨는데, 박승수 선
생님의 교재는 구조로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3순환의 경우는
상법이 문제였습니다. 김혁봉선생님
과 베리타스학원 간의 문제로 우왕
좌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합격한 사람들은 있었으니,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3순환부터 갑자기 메모리카드를
만들었는데, 모의고사보다 이것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6법을 모두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것만 봤는데,
덕을 본 과목도 있었지만, 저는 추
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서를 읽
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논리적 흐
름과 주변에 소소한 논점들을 놓치

게 되니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재와 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민소법은 박승수선생님 사례집을 보았고, 상법은 김혁봉선생님의 기본서와 사례집(사례집을 주로 보았으나, 기본서를 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정법은 류준세선생님, 헌법은 정희철선생님교재와 김유향선생님의 모의고사와 강의, 형소법은 정주형선생님, 형법은 이재상선생님, 민법은 박승수선생님의 교재를 보았습니다.

2. 3시 이후의 공부방법

이 때 몇과목은 교재를 바꿨는데, 민소는 이창한선생님, 행정법은 정성균선생님, 형소는 김영환선생님, 형법은 이인규선생님으로 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민소는 박승수선생님의 스타일이 좋았지만 대세를 따르느라 선택하게 되었고, 행정법과 형소, 형법은 바꾼 교재가 저에게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3시 공부 당시에 열심히는 했지만 해결이 때문인지 점수가 47~48점 대로 나왔었습니다.

4시에는 아프지 않기와 모의고사는 한번도 빼먹지 말고 다 응시하기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수험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4시에 나온 성적에 따라 분석해봤을 때, 확실히 회독수가 많은 과목들

이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헌법

핵심300은 물론 거의 다 외우다 시피 했고, 모의고사를 4 5번 돌렸습니다. 이걸 4순환 이후 스테디윈과 하루에 한회분씩을 외워오자고 하여 회독수를 높였습니다.

(2)행정법

행정법을 쉽게만 생각하다보니 3시까지 고질병처럼 점수가 50점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3시 이후 2달여 동안 사례를 한두 개씩 풀었습니다. 박정훈교수님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사례의 해결을 풍부하게 쓰고 싶어서 교수님사례집을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남들하는 대로 하고, 모두 빠삭하게 암기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저는 3순환에 가서 핵심정리로 바꿨는데, 핵심정리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추천합니다.

(4) 상법

취지를 꼭 써주고, 모르는 부분이라도 조문을 찾아서 쓰되, 참조조문은 되도록 많이 쓰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마지막에는 문갑의 키워드를 봤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3순환부터 교과서랑 같이 보고 가필해두었습니다. 상법의 경우 제56회에 불의타적인 문제들이 나와 저 또

한 당황했는데 그 주변의 조문을 많이 쓴 것이 점수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5) 형법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적어도 5회독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에도 2010의 기출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 술술 써내려 갈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인규 선생님의 사례집과 하태훈 교수님의 사례집이 좋았습니다.

(6) 형사소송법

형소는 처음 접했을 당시 생소했기 때문에 줄글을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소의 경우 불의타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기본서와 동일시하여 봤습니다. 기본서는 김영환 선생님 단권화자료로 했고, 모의고사는 신이철선생님 것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주형선생님의 4순환모의고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불의타는 없었고, 다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소의 최근추세를 보면 뒤에 상소나 재심파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 전날까지도 이 부분까지 충실히 읽으시길 권합니다. 형소도 3시까지 점수가 잘 안나오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매일 사례를 2개씩 풀었습니다.

(7) 민법

민법은 저에게도 힘든 과목이었

다. 재시 때부터 사례집에 있는 문제 2개를 암기해와 식사를 할때 서로 말해 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3시 이후에는 기출문제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4-2-1이 끝나고도 답안지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험 보는 전날까지 한 장씩 써보았습니다. (저도 4시 때는 4-2-1이 가능했으나, 재시나 삼시의 경우에는 힘든 일정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실력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IV. 주효했던 공부방법 & 추천하고 싶은 공부방법

1. 모의고사나 사례를 풀때 그 해당파트의 기본서를 일독합니다. 기본서에 체크하여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2. 4순환 모의고사는 강사님 구별없이 다 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3시까지 4순환을 한번 풀어보기만 했던 정도에 그쳤는데, 그랬더니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암기하는 쪽으로 했는데 형소법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약한 과목이 있다면 민법처럼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씩 매일 보시길 권합니다.

4. 민법은 매일 답안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출문제).

5.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응시하세요(정말 중요합니다.).

(민법답안지와 학원답안지를 같이 작성하다보면 하루에 150점 쓰는 날도 생기고, 정말 답 안지 기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 학원모의고사는 3-4회독을 하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모두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스터디와 관련하여

저는 재시까지는 스터디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했던 스터디도 일주일 정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놀고 싶어지기 때문에 스터디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다만 같이 밥을 먹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한명 있어야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시 이후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민법 기출답안지 작성하는 스터디와 기3을 조금씩 같이 나갈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가 저에게 정말 안맞을 거라 생각하여 완강하게 안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바꾸고 하다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거 같습니다.

V. 답안지 작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답안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넘버링을 하거나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다”“없다, 있다”도 명확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점을 하다 느낀건데, ‘날짜’나 ‘금액’을 사안적용시 꼭 넣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포섭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검토 후 사안의 적용을 쓴 후에도 마지막으로 사안의 해결이라고 목차를 잡아서 동어반복이라도 써주세요. 한 줄이라도 쓰시면 가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VI. 운동 및 휴식

운동은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두세달씩 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주변을 20분정도 걸어 다녔습니다. 사실 슬럼프는 여름에 일주일 정도 오는 거 빼고는 별로 없었는데, 해결이 됐을 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겨내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명태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럴 때 머리가 정리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휴식시간은 토요일 오후 저녁과

일요일 오전 오후였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가볍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공부를 수월하기 위해서 일요일 저녁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니다. 이진 정말 저 혼자만의 결과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의 환경요소, 운도 따라주고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및 주위에 도움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Ⅶ. 이 글을 마치며...

사실 이번에야 합격했지만, 그 동안 불합격한 적이 더 많아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

P.S. 여러분^^ 주위에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좀 더 나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2차시험의 경우 한과목이 날라갑니다.^^;

※참고사항

아래의 내용은 제가 공부할 당시 다른 분의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정리해뒀던 것입니다.

답안지 작성요령

(일반론은 최대한 간략하게!! 판례는 아는대로 최대한!! 포섭은 많이쓰기!!~)

1. 물 흐르듯이 서술하기!! 차분하게 쓰기 (쏟아내는데 급급해 하지 말 것.)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내용은 핵심을 요약하여 콤팩트하게 쓰려고 하였다.
2. 아는 것은 70%쓴다는 느낌으로, 모르는 것은 법조문을 다 뒤져서라도 배경분량채우기.
3. 초안은 15분 이내에 (어떤 쟁점으로, 어떤순서로 쓸 것인지, 논리적 연결이 중요.)
요건과 일반론 쓴 뒤 사안포섭은 한꺼번에 하기!!
4.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개념과 제도의 취지는 반드시 작성하였고, 어떤 과목은 개념에서도 사안을 포섭하였다.
가령. 행정법 1문에서 행정계획의 부분이 쟁점으로 출제되었는데 행정계획의 개념을 먼저 언급한 다음, 문제에 등장한 문구를 이용하여 이리이러한 점에서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작성한다.
5. 쟁점의 정리 부분에서 쟁점들을 조문과 함께 모두 언급한 후, 문제되는 쟁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쓰기.
甲, 乙, 丙등 최대한 많이 // (맨마지막에 씀)// 10점-3줄/ 20점-4줄

단순히 쟁점만 언급하는게 아니라 사례에서 쟁점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써야 한다 (배점은 적지만 답안지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준다. 문제의 소재에서 사례의 내용이 언급되도록 쓰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므로 좋다).

(ex) ① 범인 乙을 도피시킨 처 丁이 펜션소재지를 乙에게 알려준 것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丁이 乙의 처라는 점에서 제151조 2항에 해당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는 의미가 문제된다.

6. 목차에도 사례의 내용을 넣는다.

(ex) “丁의 펜션소재지를 알린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습해야함)

7. 학설에 따른 포섭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특히 형법-학설,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줌). - 검토부분에서 써도 될 듯.

학설 대립의 실익을 꼭 언급하려고 했고, 논거는 1개정도만을 제시하며 간단하게 썼다.

-> 검토에서 학설의 여러 논거들을 몰아서 쓰고,

8. 판례 : 3줄이상. keyword중심으로, ‘근거’ 까지!! 전합판례는 소수의견까지 쓰기. 아는데로 최대한 안외워 지는 것은 두문자로 외우고, 암기안된 판례위주로 보기!! (답안지 열람해서 봤을 때 판례는 1줄 또는 2줄 뿐이었고, 딸랑 결론만 쓰여진 상태였다)

9. 사안의 해결 부분을 풍부하게(5줄이상) 쓰려고 하였다. 사안해결에서는 반드시 질문에 대한 답을 쓰도록 했다. 사안포섭시 날짜와 금액(숫자)를 넣으면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든다.(답안지 열람했을 때 사안포섭이 2줄만 써진 상태에서 푹 푹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10. 문제는 2번씩 읽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고, 답안지를 작성하기 전에 배점에 맞춰 문항별 작성분량을 표시해놓았다.

11. 교수님들께서 채점하실 때 논리적 흐름을 중시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목차를 바꾸어 다른 논점으로 넘어갈 때에도 논점간의 논리적 연결에 신경을 썼다. 특히,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처럼 논점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소를 언급한 다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12. 강력한 한방의 펀치보다 계속적으로 깎을 날려 점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논점이 될 만한 것들은 간략하게라도 반드시 언급하였다.

11. 중요도에 상관없이 모든 지면은 다 중요하다!! - 포스트 잇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자신감!! (끝까지 기본서 붙잡기)

눈 앞의 일에 급급해 하지 말고 넓고 크게 보고, 우직하게 공부하라.

나는 무조건 된다!! 웃으면서 즐기자^^

기본서로 단권화 요령~~~!!

2. 기출을 꼼꼼히 봄 - 나올 쟁점은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3. 4-2-1 할 때 속독으로 하기!!

4. 사례집 : 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쟁점, ②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③ 통암기X, 쟁점위주로 암기(어짜피 똑같이 안나오니까, ④ 사례집에만 있는 내 용은 포스트잇

5. 후사법 할 때 기3하고, 기3할 때 후사법도 하기!

6. 각 회독 때마다 못 외운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하루에 한과목씩 볼때나 마지막날 그 부분 위주로 봄

7. 2순환 때 답안지 가져와서 검토함 (ex)장황하게 쓴거, 못쓴거)

8. 3순환부터는 책을 바로 읽지 않고, 쟁점표시된 것을 보고 먼저 학설, 판례를 떠올려본후 그 다음 암기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판례 문구, 요건 등)

9. 사례 목차 잡을 때: 학설-이름+키워드// 판례-키워드// 검토-서술어까지

10. 과목별 요령

◆민법

1. 이론부분 50페이지씩 공부시작 전 1시간 30분정도씩 읽음(2순환부터 4순환까지)
2. 2번째 돌릴 때에는 아는 것은 건너뛴 (자신을 믿어라)
3. 앞에 의뢰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봉인! (아니면 아는거 너무많이 쓰게 되니까)
4. "효과" 위주로- 손배청, 해제..

◆상법

1. 한글법전 보기(3순환만)
2. "취지" 는 반드시 쓰겠다
3. 중요한 쟁점 포스트잇 큰것에 목차 통째로 적고 키워드 쓰는 방식으로

◆행정법

1. 참고조문 - 한번씩은 다 언급하겠다
2. [헌법]과 함께 사안포섭이 중요!!!!

◆형법

1. 결론에서 "죄수" 를 놓치지 않겠다!!
2. 요건을 반드시 암기!!
3. 쟁점 찾는게 가장중요~!!
4. 형법과 형소는 판례쓰고, 동조학설, 비판학설